



목 차

	인슈어테크 동향	21
해외	- 프랑스, 영국에 이어 유럽 제2위 핀테크 허브로 급부상	21
	- 호주 Allianz,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가상현실(VR) 치료 도입	22
	-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보, 보험 상품 모집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	23
	- AI 배터리 진단으로 보험료 인하	24
기업	- 보험사 '헬스케어' 각축전...미래에셋생명도 플랫폼에 서비스 장착	25
	- 보험진단 '네·카·토·뱅'서 클릭 한번이면 '끝'	26
	- "소상공인 재해 피해 앱으로 간편 대비"...페이하이어-삼성화재 맞손	27



프랑스, 영국에 이어 유럽 제2위 핀테크 허브로 급부상

- 프랑스의 인슈어테크 산업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디지털 혁신 노력에 힘입어 2021~2023년간 연 20% 내외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
 - 인슈어테크의 2023년 시장 규모는 7.6조 원으로 핀테크 산업 중 간편결제 다음으로 크며, 대표적 기업으로 Alan(건강보험), Shift Technology(보험사기탐지), Wakam(임베디드보험) 등이 있음
-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의 ‘기업성장변화법(PACTE*, 2019년 5월)’을 시작으로 핀테크 투자의 큰 성장세가 나타남
 - * Plan d’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
 - 이 법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블록체인·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
 - 발표 후 3년간(2019~2021년) 프랑스 핀테크 투자는 연 41.9%의 빠른 성장세였고 특히 미국, 중국 등에서 투자가 늘면서 2021년엔 핀테크 투자가 100억 유로(15.1조 원)를 기록해 핀테크 강국인 영국(83억 유로)을 뛰어넘기도 함
- 또한 규제샌드박스(2016년 도입)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결제, 인터넷뱅크, 인슈어테크, 자산관리, 블록체인 등 핀테크 전반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
 -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성장변화법과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2015년에 100개 미만이었던 핀테크업체 수가 2021년 1200개까지 급증
 - 대형 보험사인 AXA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인슈어테크 인큐베이터를 설립, Qare(원격진료), Apricity(임신클리닉) 등 혁신 인슈어테크 업체의 육성에 기여
- 마지막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유럽 금융중심지 위상 약화와 함께 그 반사효과를 프랑스가 상당 부분 누리고 있음
- 프랑스는 이처럼 지난 5년간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급성장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인슈어테크, 블록체인·가상자산, P2P 부문에서 유니콘을 5개나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음

출처 : 전자신문(2025.01.12.) 프랑스, 영국에 이어 유럽 제 2위 핀테크 허브로 급부상



호주 Allianz,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가상현실(VR) 치료 도입

- 호주의 Allianz(알리안츠)는 시드니 공포증 클리닉과 협력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가상현실(VR) 노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
 - Allianz의 데이터에 따르면, 2024년 CTP 청구*의 38%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, 이는 2020년 24%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
 - * CTP는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의 약자로, 호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 차량이 가입한 CTP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
 - 주요 문제로는 불안 및 우울증(41%), 급성 스트레스(23%), PTSD(22%), 신경 쇠약(7%) 등이 포함
 - 이 프로그램은 사고로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운전 조건을 재현하는 등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
- 이는 호주의 일반 보험사 중 처음으로 VR 기술을 활용한 운전 공포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 능력에서 상당한 개선을 경험
 - 치료를 받은 고객 중 한 명은 심각한 사고 이후 PTSD를 겪었으나 VR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되어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힘
- Allianz는 이 성공적인 파일럿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
 - 시드니와 울런공의 Fear Less 클리닉 및 퀸즐랜드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,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인 'oVRcome'을 도입하여 시골 및 지역 고객들에게도 유사한 VR 노출 치료를 제공할 계획



출처 : Insurance Business(2024.12.17.) Allianz drives recovery with virtual reality therapy for accident traum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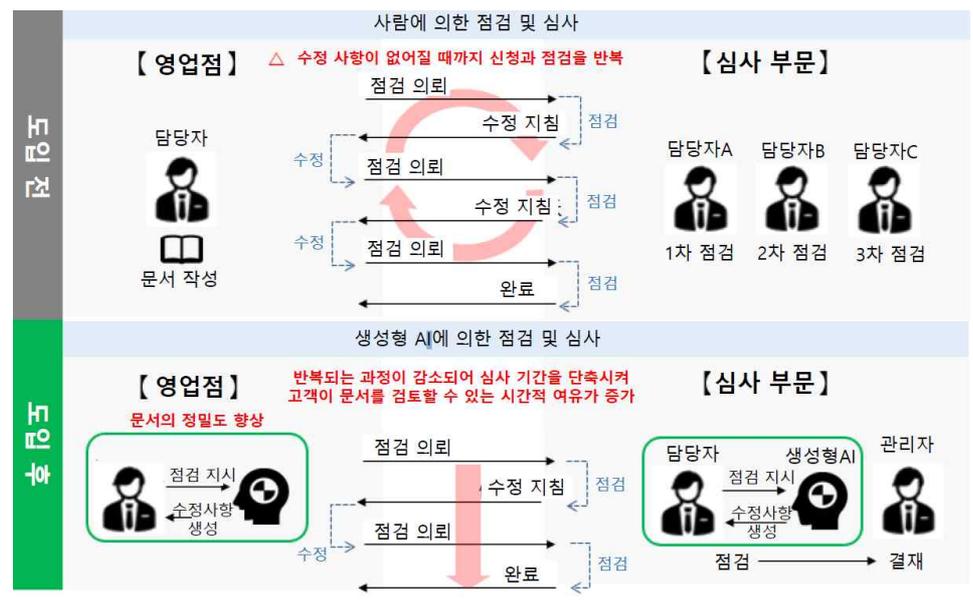


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보, 보험 상품 모집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

-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은 보험 상품 모집 업무에 활용되는 문서(이하 '모집 문서')를 생성형 AI가 점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'24년 12월부터 운용을 개시했다고 밝힘
- 기존에는 사람에 의해 모집 문서가 점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와 점검하는 담당자 간 여러 번의 수정과 점검이 반복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
 - 보험 상품의 판매나 권유 시 사용하는 팸플릿 등의 모집 문서는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이 없고 알기 쉽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수의 담당자들의 점검이 필요
 - 특히 기업이나 단체 등의 고객의 경우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제안에 맞추어 지점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므로 일반적인 문서보다 문서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
- 모집 문서 점검 업무에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업무 효율화로 인한 점검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고객은 충분한 문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
 - 모집 문서의 이탈자, 표기 불일치, 적용 할인율, 가입 조건 등의 점검 항목을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점검한 후 수정 사항을 표시하여 수정 지침을 제공
 - 이를 통해 모집 문서 초기 점검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50%인 약 4,000시간을 절감

인슈어테크

<생성형 AI 모집 문서 점검 도입 전후>



-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 측은 보험 모집 문서 점검·심사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, 상품·사무 영역 등에도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힘

출처 :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 News Release(2024.11.22.) 保険商品の販売に関わる募集文書の審査・点検業務に生成AIを活用



AI 배터리 진단으로 보험료 인하

- 보험사들이 AI 기반 배터리 진단 기술을 도입하며 차량 및 BESS* 소유자에게 보험료 절감을 제공하고 위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 - *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(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)으로 태양광 발전기, 풍력 발전기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결합하여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- AI 진단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열화* 상태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
 - * 배터리 내부에서 물리적,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
 - 배터리 열화는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전압, 전류, 저항과 같은 기본 전기화학적 데이터를 장기간 측정하여 배터리 상태를 정밀히 추적해야 함
 - AI 진단은 초기 열화를 발견하고 충전 프로필과 사용 전략을 최적화해 배터리 수명을 10~20% 연장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킴
- 이러한 AI 진단이 제공하는 안전성은 열화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지급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해 보험사에게도 큰 이점을 제공
 - 유럽의 HDI 보험사는 클라우드 기반 진단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정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배터리 진단 서비스 제공 회사인 ACCURE와 협력해 고객이 AI 진단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
 - 영국의 NARDAC 보험사는 AI 배터리 진단 서비스 제공 기업인 TWAICE와 협력하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
- AI 배터리 진단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.4%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은 보험사 간의 협력으로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

인슈어테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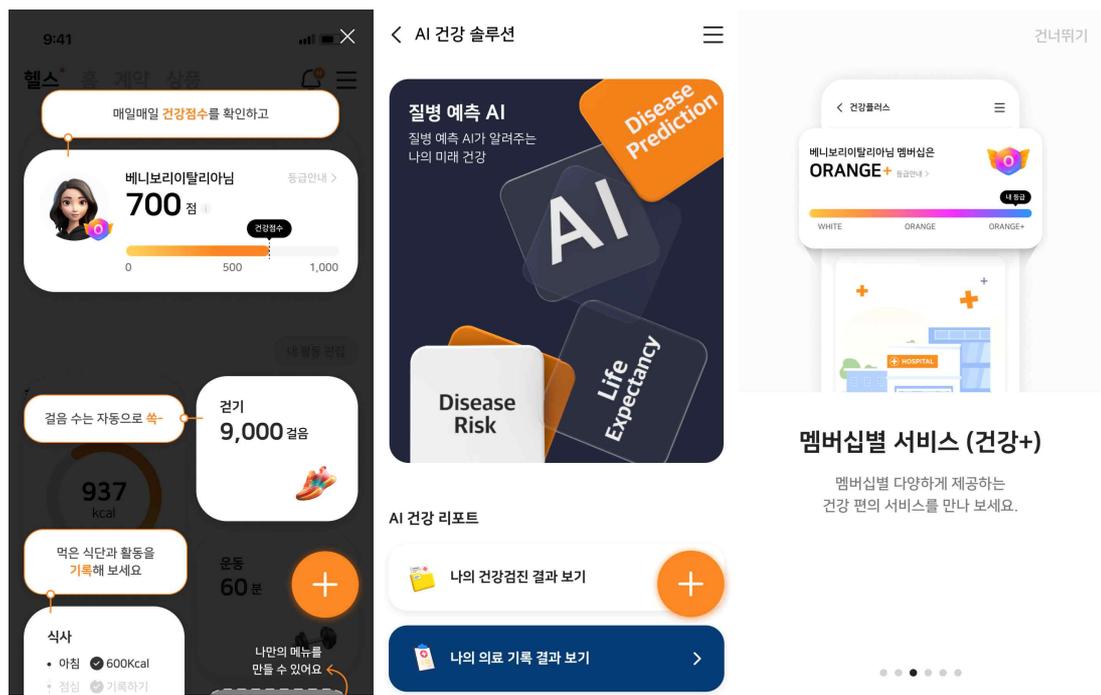
출처 : IDTechEx(2024.12.16.) AI Diagnostics Could Allow for Lower Insurance Premiums for BESS



보험사 '헬스케어' 각축전...미래에셋생명도 플랫폼에 서비스 장착

-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주목하며 관련 플랫폼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, 미래에셋생명도 자사 앱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오픈하며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음
- 미래에셋생명은 1월 6일부터 자사 앱 '엠라이프(M-LIFE)'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
 - 해당 서비스는 계약자와 피보험자, 헬스케어 앱 회원가입 고객을 △화이트 △오렌지 △오렌지 플러스 등 등급을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, 서비스 제공 카테고리는 △건강 습관 관리 △건강 기록 관리 △의료 편의(건강 플러스) 등 크게 3가지로 분류
 - 미래 건강 점수·운동 및 식단 관리·영양제 분석 등 건강 습관 관리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나, AI 건강 리포트·건강검진 우대 예약·건강검진 분석 상담 등 건강 기록 관리와 병원 예약이나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심화된 의료 편의 서비스는 고객 등급별로 차등 제공
 - 서비스 등급은 보장성·저축성 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화이트 등급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앱 회원가입만으로 총 8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
<미래에셋생명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화면>



-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“이달 6일부터 앱 내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해 아직 초기 단계”라며 “서비스 고도화는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, 내부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”고 설명

출처 : Bizwatch(2025.01.09.) 보험사 '헬스케어' 각축전...미래에셋생명도 플랫폼에 서비스 장착

인슈어테크





보험진단 ‘네·카·토·뱅’서 클릭 한번이면 ‘끝’

- 네이버페이는 12월 23일 업계 최초로 사용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를 분석하는 ‘내 보험 점검’ 서비스를 공개
 -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소득 수준까지 고려해 또래 평균 대비 자신의 보험 현황을 비교·분석해줌
 -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가입한 보험을 네이버페이와 연결하면 월 납입 보험료, 주요 보장 항목, 상품 종류별 보험료 등을 또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음
 - 예컨대 ‘또래 평균 대비 보험료를 5만원 더 내고 있다’거나 ‘사망·입원·후유장애 보장이 또래보다 적다’ 등의 정보가 제시
 - 또한, 상품별로 또래가 가장 많이 가입한 인기 보험사 및 인기 보장 정보도 제공하여 이용자는 이를 통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과도한 보험을 줄이는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음
 - 마지막으로, 네이버페이 서비스에선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음
- 카카오페이드도 ‘내 보험 진단하기’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보험료가 또래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인지, 주요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진단
- 토스의 서비스는 연령대별로 필요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토스 인슈어런스 소속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본인의 보험 현황을 상담받을 수도 있음

<네·카·토 보험 진단·분석 서비스>

- ✓ 또래 평균 대비 보험료 비교
- ✓ 3대 질환 등 보장 항목 점검
- ✓ 연령대별 보험 추천·인기 상품 확인
- ✓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확인
- ✓ 보험상품 설계 상담(보험사 연계)

자료: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토스

- 뱅크샐러드는 건강 마이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맞춤형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
- 보험료 부담이 큰 소비자라면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보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보유한 보험이 충분한지, 또래에서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

출처 : 한국경제(2024.12.29.) 보험진단 ‘네·카·토·뱅’서 클릭 한번이면 ‘끝’





“소상공인 재해 피해 앱으로 간편 대비”...페이히어-삼성화재 맞손

- 삼성화재가 포스(POS)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와 함께 ‘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(VI)’ 간편 가입 서비스와 함께 매장 관리 임베디드 서비스를 시작
 -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 또는 재해(태풍·호우·홍수·강풍·해일·대설·지진·지진해일)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물적 손해를 보상해 줌
 - 페이히어는 매장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풍수해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지원, 페이히어 앱을 다운받고 매장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와 피해 상황별 보상 범위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음
 - 또 페이히어 앱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서비스 외에도 비대면 카드 가맹, 매장 및 매출 현황 분석,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음

<페이히어-삼성화재 ‘소상공인 풍수해보험’ 원스톱 가입 서비스>



- 페이히어는 향후 매장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
- 해당 서비스에 이어 페이히어와 삼성화재는 매장 관리 플랫폼과 보험 상품을 결합한 임베디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예정

출처 : 머니투데이(2024.12.24.) “소상공인 재해 피해 앱으로 간편 대비”...페이히어-삼성화재 맞손

